

성남지역 거주자들의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and Demands for Leisure Facilities

신구대학 가정과
조교수 이원영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강순주

Dept. of Homeconomics, Shingu College

Assistant Prof. : Lee, Won Young

Dept. of Consumer Sciences and Housing, KonkukUniversity

Prof. : Kang, Soon J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use of the data as a basic material for the plans for the leisure facilities in Songnam, investigating the actual use and demands of local residents about leisure facilities in Sujung-& Jungwon-gu and Pundang-gu for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through the art and cultural life of the residents in Songnam area.

The questionnaires of this study were distributed over Pundang-gu and Sujung-& Jungwon-gu 710 copies in total.

There were some meaningful differences in household about the actual use of leisure facilities (4 types): in Pundang-gu, occupation and age of husband, occupation of housewife, existence of children, monthly income, house size, number of rooms and possession of cars; in Sujung-& Jungwon-gu,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of husband, occupation of housewife about the social and recreation facilities only.

Another meaningful differences in household about the demands for leisure facilities are: in Pundang-gu, /educational background and age of husband, age of housewife and the youngest child, and possession of cars; in Sujung-& Jungwon-gu, /age, occupation and location of workplace of husband and housewife, and age of children.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소득수준의 증가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증가되어 개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일환으로써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자유시간의 증대와 주택 내에서의 업무수행도 가능해 집에 따라 가정이 더욱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85%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까지는 대도시 중심의 인구집중 현상이 계속되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가 발달하여 여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연숙; 1995). 따라서 미래의 여가문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편리를 위한 근접성을 고려하여 여가문화시설을 주택 및 근린주거환경권 내에서 수용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정부 및 각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성남이 다른 대도시들과 달리 서울과 인접해있으며 대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위성도시성·신흥도시성·인공도시성 등의 특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개발된 지역이므로, 기존의 수정·중원구 지역과 분당신도시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실태 및 여가생활 현황과 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여 보다 진취적이며 미래 예측 가능한 여가문화환경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지역사회발전과 두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고취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당구와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와 요구도를 조사·분석하여 성남시 정책수립에 활용가능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두 지역간에 각각 여가문화시설 현황에 따른 거주자들의 이용실태 및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두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이들은 가구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III〉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두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가구특성 중 여가문화시설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이들은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IV〉 미래의 여가문화시설 계획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여가문화의 개념

여가란 생활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유로운 시간인 동시에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로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김오중; 1995)이며, 여가활동이란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분절화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통합된 인격(integrated personality)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김애련·한내창; 1997)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가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활동, 태도, 시간을 함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생활에서 오는 모든 긴장감, 구속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스러운 마음을 근본으로써 자유시간을 향유하는 것으로써 최근에는 활동까지 포함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란 한 사회 또는 보통집단의 믿음과 세계관, 가치관, 규범, 관습과 행동을 포괄하는 생활양식이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문화의 속성은 1)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문화(관찰가능한 문화영역), 2) 행위를 위해 시설을 필요로 하는 문화, 3)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할 문화, 4)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정지영·박영기: 1992)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자기 존재의 확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행위란 행위를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여가와 문화란 시간과 행위가 함께 있음으로써 습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여가문화란 다른 문화의 창조과정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가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창조하여 세습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며, 사회의 성원들은 이 여가문화를 학습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을 배워가게 되는 것(박승희: 1997)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가문화는 그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미래여가의 특징은 표준화된 여가에서 학습을 필요로 하는 개성화된 여가로 바뀔 것이며, 여가의 수요도 분화하고 다양화하여 대중문화의 쇠퇴를 가져오고 개별적인 접근과 자기실현의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여가문화시설은 각각 성별, 연령, 자녀유무, 직업, 소득, 주거수준, 자동차소유여부 등의 가구특성과 지역사회현황에 따른 다양성, 개성, 창조성 등을 고려하여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계속적 증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여가문화시설의 유형 및 요구

현대 우리사회에서 여가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여가활동양식은 곧 우리의 생활양식이며, 여가유형은 바로 우리의 문화유형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가문화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공간·시설·이용여부·필요도 등의 조건 및 환경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유형분류가 되고 있다.

〈성남통계연보(1998)〉에는 성남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서 20가지 시설이 발표되어 있는데, 그중 '교육 및 문화' 편에 성남시 여가문화시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사설학원, 예술단, 문화재 등이 조사분석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1985)에서는 여가공간 및 시설은 여가활동을 위한 모든 물리적자원이라고 하였으며, 편의상 여가공간은 자연공원, 수변자원, 근린공원, 사적지로, 여가시설은 스포츠시설, 감상·관람시설, 취미·교양·창작시설, 오락·사교시설, 숙박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문화예술통계(1998)에 따르면 '시·도별 문화시설 수' 편에 공연시설(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시·군(구)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도서관의 5가지 유형을 16가지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이범재·김창언(1992)은 문화시설을 공연시설, 전시시설, 행사·집회시설, 교육·보존시설의 4개 유형, 10가지 시설로 세분화하여 조사분석하였다. 한편 김광득(1991)은 여가행동을 스포츠 및 건강활동, 취미 및 교양활동, 오락 및 사교활동, 감상과 관람활동, 행락 및 관광활동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오찬옥(1997)의 연구에서는 여가시설을 스포츠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전시시설, 사교시설의 4가지 유형, 28가지로 분류하여, 각 여가시설의 요구도에 조사대상가구의 가정생활주기별, 소득수준별, 주택평수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으며, 양세화(1998)의 연구에서는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가 조사대상가구 부인의 연령 및 학력, 가계월평균소득, 주택규모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권미화(1994)는 미혼신세대 소비자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시설을 선호요인에 따라 문화시설, 지속적 운동시설, 지적교양시설, 일회적 운동시설의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 시설들은 사회인구학적특성(성별, 교육수준, 연령, 직업)과 경제적특성

(개인용돈, 개인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으로 다양한 가구특성요인에 따라 여가문화시설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이들을 수렴하여 사회의 변화와 여가의 위상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여가계획의 수립, 여가자원 시설개발의 지역간 평형성 유지, 자기실현적 여가자원의 개발, 여가교육의 강화, 여가지표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김광득: 1997)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래의 여가문화활동은 주거환경권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시설들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신중한 검토로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원활한 여가문화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한 조사기간은 1999년 5월 17일부터 1999년 6월 25일 까지였으며, 조사대상은 1999년 조사당시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었으며, 조사설문지는 성남시의 특수한 입지조건에 따라 개발되었던 기존의 두 지역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실태와 요구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분당구와 수정·중원구에 각각 500부씩 1,000부를 배포하여, 주부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768부 중 응답이 부실한 58부를 제외한 710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한국관광공사(1985), 김광득(1991), 권미화(1994), 오찬옥(1997), 양세화(1998)의 설문지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주거환경학 전공자의 자문을 받아 1999년 4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학력·직업·직장의 위치, 자녀유무, 막내자녀의 연령, 월평균총소득,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방 수, 자동차소유여부를 조사하였다.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조사는 스포츠시설(11), 취미·교양시설(7), 감상·관람시설(8), 사교·위락시설(8)의 4가지 유형, 34가지 시설에 대해 수정·중원구와 분당구의 두 지역에 대해 각각 그 이용실태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이용실태는 34가지 시설 각각에 대한 현재의 이용여부를 물어 파악하였으며, 요구도는 기입자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필요없다'의 1점에서 '필요하다'의 3점으로 분류한 Likert유형 척도를 사용하여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AS Package Program(ver. 6.12)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를 보았으며,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요구도와와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ANOVA와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지역의 특수성

성남시는 1960년대 서울시에서 사회적 인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에 따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변과 청계천변 무허가 건물의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선정하여 계획 수립되기 시작하여, 1971년 10월 14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주택지 경영사업을 인수하여 성남개발 3개년 투자계획에 의하여 도시제반사업 및 각종 산업시설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유입인구 증가에 의해 1973년 7월 1일 단일 시로 승격하였다. 그런데 성남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대주택단지로 조성되었고, 도시역사가 짧아

도시기능이 부족하여 주민생활도 서울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자연발생적 일반도시와는 달리 위성도시성, 인공도시성, 신흥도시성의 특성을 지니고 발달되어 왔다(이원영·이길순: 1987).

그 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소비율 상승, 가구수 증가, 주택투기 등의 원인에 의해 주택수요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울림픽 준비로 인한 정부대책소홀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통제 등의 원인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9년 8월 30일에 분당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곧이어 공사가 착수되어 그 해 11월 25일에 첫 번째 분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7년만인 1996년에 공식적인 준공이 선언되었다(안건혁: 1999).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극성과 부실공사, 교통 등 입주자 생활불편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서비스 시설들을 미리 갖추지 못하고 입주시키게 되어 불편한 신도시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서울근교에 bedtown으로 개발된 신도시이므로 대부분 서울사람들이 입주하여 수도 지향적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위성도시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성남시에 속해 있지만 분당은 독립된 도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성남은 1991년 판교구리간 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교통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교통망이 형성되었고, 1994년 9월, 1996년 11월 지하철 분당선과 8호선의 개통¹⁾으로 분당신시가지간과 성남 신·구시가지의 지하교통망 확보로 현재는 전국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발달에 이어서, 1997년 말 현재 인구 92만 6,832명²⁾으로 경기도 21개시 중 인구 제1위의 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내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근린생활시설 및 여가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IV. 조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1) 수정·중원구의 가구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16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과 같다.

수정·중원구 조사대상 가구의 남편은 48.4%가 36-45세이었고,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상이 37.4%와 34.9%로 비슷하였으며,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34.3%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전문기술직, 생산판매서비스직 순이었으며, 직장위치는 성남과 서울이 45.9%, 35.0%였다.

부인의 경우는 50.6%가 35세 이하이었고, 51.1%가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은 전업주부가 70.1%, 사무관리직이 9.6%, 전문기술직이 3.9%로 1997년 현재 여성전문·관리직종사자 전국평균비율 12.0%³⁾와 비교해 보면 수정·중원구 여성의 전문·관리직은 1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장위치는 81.4%가 성남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89.8%에 자녀가 있었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은 35.2%가 6세 이하인 가구가 많았으며, 막내자녀가 없는 경우도 23.4%나 되었다. 월평균총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32.1%, 150-200만원이 29.5%, 250만원 이상이 21.8%, 200-250만원이 16.6%로, 200만원이하인 가구가 60%이상인 것을 볼 때, 수정·중원구 조사대상가구는 1997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287,335원³⁾ 보다 비교적 낮은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47.6%가 자가로, 1995년 현재 전국 자가율 53.3%에 비해 낮은 편이며, 주택거주형태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이 38.0%, 36.2%, 25.8% 순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자동차는 75.3%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당구의 가구특성

분당구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가구의 남편은 62.8%가 36-45세이며,

〈표 1〉 수정·중원구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징

N = 401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119	29.7	부인의 연령	35세 이하	203	50.6	
	36-45세	194	48.4		36-45세	136	33.9	
	46 이상	88	21.9		46세 이상	62	15.5	
남편의 학력	중졸이하	66	16.5	부인의 학력	중졸이하	90	22.4	
	고졸	150	37.4		고졸	205	51.1	
	전문대졸	45	11.2		전문대졸	40	10.0	
	대졸이상	140	34.9		대졸이상	66	16.5	
남편의 직업	자영업	100	29.9	부인의 직업	자영업	23	7.4	
	전문기술직	62	18.5		전문기술직	12	3.9	
	생산판매서비스직	48	14.3		생산판매서비스직	22	7.1	
	사무관리직	115	34.3		사무관리직	30	9.6	
	기타	10	3.0		전업주부	218	70.1	
남편의 직장위치	서울	132	35.0	부인의 직장위치	기타	6	1.9	
	성남	173	45.9		서울	18	11.5	
	경기도(광주)	28	7.4		성남	127	81.4	
	기타	44	11.7		경기도(광주)	2	1.3	
자녀 유무	있음	360	89.8	주택 거주형태	기타	9	5.8	
	없음	41	10.2		단독	103	25.8	
막내자녀 연령	없음	94	23.4		주택규모	다세대	143	36.2
	6세 이하	141	35.2	아파트		150	38.0	
	7-12세	68	17.0	방수		20평 이하	167	41.6
	13-18세	40	10.0			20평대	153	38.2
	19세 이상	58	14.5		30평대	62	15.5	
월평균 총소득	150만원 이하	122	32.1	40평 이상	19	4.7		
	150-200만원	112	29.5	자동차 소유여부	소유	302	75.3	
	200-250만원	63	16.6		무소유	99	24.7	
	250만원 이상	83	21.8		주택 소유형태	자가	191	47.6
자가	191	47.6	임대	210		52.4		

69.6%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전문기술직, 생산판매서비스직의 순이었고, 직장의 위치는 56.8%가 서울, 31.2%가 성남으로 수정·중원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부인의 경우는 59.9%가 36-45세이며, 50.8%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76.5%, 전문기술직이 8.4%, 사무관리직이 4.8%로 1997년 현재 여성전문·관리직종사자 비율과 비교

해 보면, 분당구도 13.2%로 전국평균비율에 비해 높은편이다. 직장의 위치는 75.6%가 성남, 17.9%가 서울의 순으로 수정·중원구와 같이 대부분 성남에 직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들 가구의 93.2%에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은 37.2%가 7-12세로 초등학교기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월평균총소득은 250만원 이상이 51.2%임을 볼 때, 분당구 조사대상가구는 1997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표 2> 분당구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N = 309

변 인	구 분	빈도	%	변 인	구 분	빈도	%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43	13.9	부인의 연령	35세 이하	74	23.9
	36-45세	194	62.8		36-45세	185	59.9
	46 이상	72	23.3		46세 이상	50	16.2
남편의 학력	중졸이하	33	10.7	부인의 학력	중졸이하	43	13.9
	고졸	43	13.9		고졸	82	26.5
	전문대졸	18	5.8		전문대졸	27	8.7
	대졸이상	215	69.6		대졸이상	157	50.8
남편의 직업	자 영 업	69	26.2	부인의 직업	자 영 업	13	5.2
	전문기술직	61	23.2		전문기술직	21	8.4
	생산판매서비스직	31	11.8		생산판매서비스직	6	2.4
	사무관리직	91	34.6		사무관리직	12	4.8
	기 타	11	4.2		전업주부	192	76.5
				기 타	7	2.8	
남편의 직장위치	서 울	151	56.8	부인의 직장위치	서 울	14	17.9
	성 남	83	31.2		성 남	59	75.6
	경기도(광주)	14	5.3		경기도(광주)	0	0.0
	기 타	18	6.8		기 타	5	6.4
자녀 유무	있음	288	93.2	주택 거주형태	단 독	7	2.3
	없음	21	6.8		다세대	19	6.2
					아파트	281	91.5
막내자녀 연령	없음	67	21.7	주택규모	20평 이하	25	8.1
	6세 이하	60	19.4		20평대	75	24.3
	7-12세	115	37.2		30평대	127	41.1
	13-18세	37	12.0		40평 이상	82	26.5
	19세 이상	30	9.7				
월평균 총소득	150만원 이하	23	7.9	방 수	2개 이하	42	13.6
	150-200만원	60	20.6		3개	150	48.5
	200-250만원	59	20.3		4개 이상	117	37.9
	250만원 이상	149	51.2				
주택 소유형태	자가	198	64.1	자동차 소유여부	소 유	284	91.9
	임대	111	35.9		무소유	25	8.1

높은 소득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64.1%가 자가로, 수정·중원구보다 높았으며 1995년 전국자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었고, 주택거주형태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이 91.5%, 6.2%, 2.3%로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택규모는 30평대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는 91.9%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주지역별 여가문화시설의 이용실태 및 요구도

본 연구에서는 여가문화시설을 스포츠시설(11), 취미·교양시설(7), 감상·관람시설(8), 사교·위락시설(8)의 4개 유형, 34가지 시설로 세분화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각각의 이용여부와 요구수준을 조사하였다.

여가문화시설의 이용률은 수정·중원구와 분당구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된 34가지 시설에 대한 이용

여부를 물어보았으며, 요구도는 '필요하다' 3점에서 '필요없다' 1점까지 Likert 유형척도에 의해 조사하여 분당구와 수정·중원구간의 차이를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1) 이용실태 분석

여가문화시설 4개 유형 34가지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포츠시설의 경우,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

<표 3> 여가문화시설의 이용실태와 요구도

시 설		이용률 : 빈도(%) ¹⁾		요구도 : M(SD) ²⁾	
		분당구(n=309)	수정·중원구(n=401)	분당구(n=309)	수정·중원구(n=401)
스포츠 시 설	탁 구 장	10(3.2)	39(9.9)	2.08(0.90)	2.05(0.86)
	테니스장	43(13.9)	44(11.2)	2.08(0.92)	2.04(0.87)
	볼 링 장	92(29.8)	128(32.7)	2.03(0.91)	2.08(0.89)
	수 영 장	153(49.5)	39(9.9)	2.28(0.91)	2.32(0.87)
	에어로빅장	56(18.1)	45(11.5)	1.95(0.90)	1.95(0.87)
	헬스클럽	72(23.3)	91(23.2)	2.10(0.94)	2.07(0.87)
	골프연습장	77(24.9)	13(3.3)	1.79(0.86)	1.47(0.67)
	스쿼시장	19(6.1)	23(5.9)	1.86(0.89)	1.89(0.86)
	운 동 장	95(30.7)	114(29.1)	2.15(0.94)	2.19(0.90)
	실내체육관 체육도장	23(7.4) 37(12.0)	38(9.7) 33(8.4)	2.16(0.94) 1.92(0.89)	2.00(0.90) 1.91(0.87)
취미· 교양시설	도 서 관	94(30.4)	166(42.3)	2.54(0.83)	2.52(0.83)
	컴퓨터이용실	57(18.4)	91(23.2)	2.24(0.91)	2.38(0.87)
	각종학원	104(33.8)	78(19.9)	2.08(0.89)	2.05(0.86)
	집회/행사장	35(11.3)	56(14.3)	1.88(0.87)	1.90(0.82)
	문화센터	165(53.4)	165(42.1)	2.41(0.87)	2.51(0.79)
	사회복지관	60(19.5)	105(26.8)	2.24(0.91)	2.30(0.88)
	기 원	33(10.7)	27(6.9)	1.80(0.84)	1.77(0.79)
감상· 관람시설	문화회관	73(23.6)	94(24.0)	2.30(0.91)	2.32(0.87)
	소 극 장	88(28.5)	108(27.6)	2.29(0.89)	2.19(0.89)
	야외공연장	111(35.9)	105(26.8)	2.30(0.90)	2.34(0.86)
	미술관/전시장	76(24.6)	75(19.1)	2.21(0.92)	2.23(0.88)
	박 물 관	68(22.0)	91(23.2)	2.23(0.91)	2.27(0.87)
	과 학 관	44(14.2)	73(18.6)	2.26(0.90)	2.28(0.88)
	동/식물원	68(22.0)	140(35.7)	2.25(0.91)	2.39(0.85)
영 화 관	161(52.1)	168(42.9)	2.47(0.84)	2.17(0.89)	
사교· 위락시설	놀 이 방	37(12.0)	103(26.3)	2.01(0.95)	2.20(0.90)
	어린이회관	22(7.1)	42(10.7)	2.14(0.93)	2.25(0.90)
	청소년회관	33(10.7)	90(23.0)	2.21(0.93)	2.21(0.90)
	여성회관	42(13.6)	74(18.9)	2.24(0.92)	2.23(0.90)
	노인회관	22(7.1)	36(9.2)	2.06(0.93)	2.10(0.92)
	공 원	225(72.8)	272(69.4)	2.53(0.82)	2.64(0.72)
	유 원 지	103(33.3)	161(41.1)	2.05(0.93)	2.27(0.87)
	각종회관	22(7.1)	19(4.8)	1.84(0.87)	1.82(0.83)

1) 빈도는 중복응답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으며, 이용실태의 비율은 총표본수에 대한 비율임.

2) 3: 필요하다 2: 그저그렇다 1: 필요없다

인 시설은 수영장이었으며 다음으로 운동장, 볼링장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인 시설은 탁구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정·중원구에서는 볼링장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운동장과 헬스클럽인 반면, 스퀘시장의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지역간의 시설이용실태를 비교해보면, 분당구는 수영장시설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반면, 수정·중원구의 수영장 이용률은 분당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성남시 「시정백서」의 결과처럼 수정·중원구의 수영장 시설이 분당구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골프연습장 시설이용에서 나타나는 지역간의 차이는 시설현황 및 경제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취미·교양시설의 경우를 보면, 우선 분당구는 문화센터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종학원, 도서관의 순이었으며, 컴퓨터를 위시한 정보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금 컴퓨터이용률이 낮은 이용률은 보이는 것은 경제적 여유로 인한 컴퓨터보급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정·중원구에서는 도서관과 문화센터 이용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관, 컴퓨터이용실의 순이었으며, 기원의 이용률은 두 지역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두 지역간의 취미·교양시설 중 도서관 이용실태 차이는 1999년 현재 도서관¹⁾시설이 수정구와 중원구에 2개소 있으나, 분당구에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분당구에 시립중앙도서관 및 정자도서관, 수정구에 단대도서관을 건립중에 있으므로 양질의 교육·정보·문화·여가활용 기회의 제공으로 높은 이용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감상·관람시설의 경우를 보면, 분당구와 수정·중원구에서 모두 영화관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이며, 다음으로 분당구는 야외공연장, 소극장의 순이었고, 수정·중원구는 동/식물원, 소극장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간의 영화관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영화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 양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수정·중원구에서 2위가 동/식물원의 이용으로 나타난 것은 가까이에 용인 자연농원시설이 위치하였고, 분당구에 비해 막내자녀가 학령전기 집단이 많기 때문인 것

로 분석된다. 또한 과학관의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은 두 지역에 모두 과학관 시설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위락시설의 경우를 보면, 분당구와 수정·중원구에서 모두 공원과 유원지시설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당구는 여성회관 시설로 수정·중원구는 놀이방시설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공원과 유원지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각각 남한산성 및 중앙공원, 탄천 등의 시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두 지역의 각종회관시설, 노인회관, 어린이회관 등의 낮은 이용률은 지역간의 시설현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이들 시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4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인 시설은 수정·중원구에서는 공원,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 시설이었고, 분당구에서 공원, 문화센터, 영화관, 수영장 시설이었다.

2) 요구도 분석

여가문화시설 4개 유형 34가지 시설에 대한 요구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시설의 경우, 분당구에서 요구도가 높은 시설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의 순이었으며, 가장 요구도가 낮은 시설은 골프연습장이었다. 한편 수정·중원구에서도 높은 요구도를 보인 시설은 수영장, 운동장, 볼링장이었으나, 두 지역에서 모두 골프연습장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볼 때 골프가 아직은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취미·교양시설의 경우, 두 지역에서 모두 도서관, 문화센터, 컴퓨터 이용실, 사회복지관의 순으로 유사한 요구도를 보였으며, 기원에 대한 요구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상·관람시설의 경우를 보면, 분당구에서는 영화관시설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수정·중원구는 동/식물원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음으로는 두 지역이 야외공연장, 문화회관의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요구도가 가장 낮은 시설은 수정·중원구의 영화관시설이었다. 이는 분당구의 영화관시설이 수정·중원구에 비해 부족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동/식물원의 요구도를 보면 수정·중원구에서는 이용실태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막내 자녀연령이 학령전기집단이 많기 때문에 근접성 개념으로 볼 때 근린주거권내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위락시설의 경우는 두 지역에서 모두 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분당구에서는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어린이회관의 순이었으며, 수정·중원구에서는 유원지, 어린이 회관, 청소년회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회관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두 지역에서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중원구에서는 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동/식물원, 컴퓨터이용실, 야외공연장, 수영장, 문화회관의 순으로, 분당구에서는 도서관, 공원, 영화관, 문화센터,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소극장, 수영장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이용실태와 요구도 간의 관계

각 여가문화시설의 유형에 따른 이용실태와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당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며 요구되는 스포츠 시설은 수영장이었다. 그러나 탁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은 낮은 이용실태를 보이거나 높은 요구도를 보여 이러한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당구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수영장, 탁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시설의 1997년 현재 등록된 시설²⁾의 수가 수영장 3개, 탁구장 1개, 실내체육관 0개, 테니스 시설 1개 밖에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용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헬스클럽시설도 이용률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설 확보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운동장 시설은 이용률이 높으면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시설 확보도 필요하지만 학교운동장 시설의 개방정책 등의 더욱 효과적인 활용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골프연습장 시설은 이용도가 4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나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현재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수정·중원구에서 많이 이용하며 요구되는 스포츠 시설은 운동장, 볼링장이었다. 그러나 수영장, 탁구장, 테니스장은 낮은 이용률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보이므로 이들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수영장, 운동장,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시설이 1997년 현재 등록된 시설²⁾로 운동장 1개, 볼링장 9개, 수영장 3개, 탁구장 3개, 테니스장이 0개 밖에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용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파악할 수 있다.

취미·교양시설의 경우 분당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고 있는 시설은 문화센터, 각종학원 시설이었다. 그런데 각종학원 시설이 이용률도 높으며 요구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분당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서관, 컴퓨터이용실, 사회복지관의 이용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요구도를 보여 이러한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수정·중원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설은 도서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이었으며, 컴퓨터이용실 이용률은 낮으나 높은 요구도를 보여 주고 있어 이들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감상·관람시설의 경우, 분당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고 있는 시설은 영화관, 야외공연장, 소극장이었다. 그러나 문화회관, 미술관/전시장, 박물관, 과학관, 동/식물원은 이용률은 낮으나 요구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감상·관람시설 대부분의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분당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중에 있으나, 수정·중원구에서도 이용률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감상·관람시설은 두 지역에서 모두 이들 시설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교·위락시설의 경우, 분당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고 있는 시설은 공원과 유원지시설이었다. 그러나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어린이 회관, 노인회관 시설은 이용률은 낮으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부족해소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정·중원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고 있는 시설은 공원, 유원지, 놀이방이었다. 그러나 어린이 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은 이용률이 낮으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두 지역 모두 각 연령층 및 집단을 위하여 양적·질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원·유원지 및 다양한 회관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남시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공간의 확충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통한 체육공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본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원 시설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남시민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휴식공간 즉 환경친화적인 공원 시설을 진정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수정·중원구에서는 놀이방 시설이 이용률도 높고 요구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막내 자녀연령이 낮아서 취업한 부인이나 전업주부의 경우에 시간활용을 위해 보다 많은 놀이방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길순·이원영(1997)의 연구에서도 성남시 여성들의 85.7%가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었으며, 결혼이나 취업과 상관없이 요구수준이 높았고, 이들은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사회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을 통하여 직업전문교육, 가정생활교육 및 건강·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므로 성남시 여성들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생활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남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수²⁾가 1997년 현재 40,606명(수정·중원구: 21,542명, 분당구: 19,064명)으로 4.4%나 되며,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될 추세이므로 성남시에서는 노인들의 노후생활대책 및 건전한 여가문화시설확보를 위해 노인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시설 등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문화시설의 이용실태 분석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문화시설의 4가지 유형(스포츠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관람시설, 사고·위락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수정·중원구 가구특성에 따른 이용실태분석

수정·중원구의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정·중원구에서 취미·교양시설과 감상·관람시설의 이용여부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6세 이하인 가구

<표 4> 수정·중원구 가구특성별 여가문화시설 이용 실태분석

	변인	구 분	빈도(%)	χ^2
취미·교양시설	막내자녀연령	없음	76(18.95)	12.117*
		6세 이하	98(24.44)	
		7-12세	57(14.21)	
		13-18세	35(8.73)	
감상·관람시설	막내자녀연령	없음	77(19.20)	12.556*
		6세 이하	102(25.44)	
		7-12세	53(13.22)	
		13-18세	33(8.23)	
사고·위락시설	남편의 학력	없음	48(11.97)	7.912*
		중졸이하	122(30.42)	
		고졸	39(9.73)	
		전문대졸	123(30.67)	
사고·위락시설	남편의 직업	자영업	84(25.07)	10.183*
		전문기술직	54(16.12)	
		생산판매서비스직	33(9.85)	
		사무관리직	100(29.85)	
사고·위락시설	부인의 직업	기타	7(2.09)	19.004**
		자영업	15(4.82)	
		전문기술직	10(3.22)	
		생산판매서비스직	13(4.18)	
사고·위락시설	부인의 직업	사무관리직	29(9.32)	19.004**
		전업주부	185(59.49)	
사고·위락시설	기타	4(1.29)		

*P<.05 **P<.01

집단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조사대상가구의 연령층으로 볼 때 자녀들의 교육 및 부모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위락시설의 이용여부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남편의 학력 및 직업, 부인의 직업이었다. 남편이 고졸,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관리직,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과 부인이 전업주부이거나,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비교적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이 안정된 가구에서 사교·위락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분당구 가구특성에 따른 이용실태분석

분당구의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당구에서 스포츠시설 이용여부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부인의 직업, 주택규모, 방 수, 자동차소유여부였다. 부인의 경우 전업주부이거나 주부가 전문기술직종사자이며 주택규모는 30평대 이상으로 방이 3개 이상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스포츠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미·교양시설의 이용여부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부인의 직업, 남편의 직업 및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유무, 월평균총소득이었다. 부인이 전업주부이거나,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며, 남편이 사무관리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남편의 연령이 36세 이상이며, 막내자녀연령이 7-12세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월평균총소득이 많을수록 시설 이용률이 높아져서 25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취미·교양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상·관람시설의 이용여부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자녀유무, 주택규모, 방 수였다. 자녀가 있으며, 주택규모는 30평대 이상으로 방이 3개 이상인 가구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위락시설 이용여부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자녀유무와 주택규모였다. 자녀가 있으며, 주택규모가 30평대 이상인 가구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미·교양시설, 감상·관람시설, 사교·위

<표 5> 분당구 가구특성별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분석

	변인	구분	빈도(%)	χ^2
스포츠 시설	부인의 직업	자영업	8(.19)	13.179*
		전문기술직	16(6.37)	
		생산판매서비스직	6(2.39)	
		사무관리직	8(3.19)	
		전업주부 기타	170(67.73) 6(2.39)	
주택 규모		20평 이하	17(5.50)	10.723*
		20평대	59(19.09)	
		30평대	115(37.22)	
		40평 이상	70(22.65)	
방 수		2개 이하	29(9.39)	9.014*
		3개	129(41.75)	
		4개 이상	103(33.33)	
자동차 소유여부		소유	247(79.94)	16.798***
		무소유	14(4.53)	
취미· 교양 시설	부인의 직업	자영업	8(3.19)	12.996*
		전문기술직	14(5.58)	
		생산판매서비스직	6(2.39)	
		사무관리직	9(3.59)	
		전업주부 기타	164(65.34) 4(1.59)	
	남편의 직업	자영업	58(22.05)	11.990*
		전문기술직	49(18.63)	
		생산판매서비스직	26(9.89)	
		사무관리직	79(30.04)	
		기타	5(1.90)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29(9.39)	7.045*
		36-45세 46세 이상	164(53.07) 56(18.12)	
막내 자녀 연령		없음	45(14.56)	9.399*
		6세 이하	49(15.86)	
		7-12세	97(31.39)	
		13-18세	31(10.03)	
		19세 이상	27(8.74)	
자녀 유무		유	239(77.35)	15.647***
		무	10(3.24)	
월평균 총소득		150만원 이하	14(4.81)	9.399*
		150-200만원	47(16.15)	
		200-250만원	51(17.53)	
		250만원 이상	127(43.64)	
자녀 유무		유	230(74.43)	11.732***
		무	10(3.24)	
감상· 관람 시설	주택 규모	20평 이하	17(5.50)	10.284*
		20평대	53(17.15)	
		30평대	110(35.60)	
		40평 이상	60(19.42)	
	방 수		2개 이하	27(8.74)
3개			123(39.81)	
사교· 위락 시설	자녀 유무	유	239(77.35)	5.782*
		무	13(4.21)	
주택 규모		20평 이하	17(5.50)	7.855*
		20평대	59(19.09)	
		30평대	112(36.25)	
		40평 이상	64(20.71)	

*P<.05 **P<.01 ***P<.001

〈표 6〉 가구특성별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의 지역비교분석(교차분석 결과종합)

변인	스포츠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관람시설		사교·위락시설	
	분당구	수정·중원구	분당구	수정·중원구	분당구	수정·중원구	분당구	수정·중원구
부인의 직업	*		*					**
남편의 직업			*					*
남편의 연령			*					
남편의 학력								*
막내자녀의 연령			*	*		*		
자녀유무			***		***		*	
월평균총소득			*					
주택규모	*				*		*	
방 수	*				*			
자동차소유여부	***							

*P<.05 **P<.01 ***P<.001

락시설에서 자녀유무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의 연령이 36-45세로 자녀들이 대부분 학령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자녀양육 및 교육, 부모들의 자기실현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두 지역간의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를 조사 대상 가구특성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가구특성에 의해 이용실태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문화시설의 요구도 분석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여가문화시설(스포츠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관람시설, 사교·위락시설)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그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다중범위검증)를 실시하였다.

1) 스포츠시설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스포츠시설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수정·중원구의 경우, 스포츠시설의 요구도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남편과 부인의 학력, 주택규모였다. 부인의 학력은 분당구와 같이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요

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양세화(1998)의 연구에서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스포츠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부인의 경우에 건강을 위한 배려로 스포츠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분당구의 경우, 스포츠시설의 요구도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남편의 연령, 부인의 연령 및 학력, 막내자녀의 연령, 자동차소유여부였다. 남편의 연령은 36-45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스포츠시설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오찬옥(1997), 양세화(1998)의 연구에서 스포츠시설 요구도와 가족생활주기가 무관하다고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서, 이유는 남편의 연령이 35세이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여가시간도 적고, 아직은 건강하므로 스포츠시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46세 이상 집단은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인의 연령에서도 36-45세 집단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는데 이는 남편의 연령집단 경우와 같은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에서는 7-12세 자녀를 둔 가구집단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를

〈표 7〉 가구특성별 스포츠시설 요구도 지역비교분석

분당구(n=309)						수정·중원구(n=401)					
변인	구분	N	M	D	F	변인	구분	N	M	D	F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43	20.74	B	4.55**	남편의 학력	중졸 이하	66	20.65	B	2.14
	36-45세	72	23.41	A			고졸	147	21.42	AB	
	46세 이상	192	20.60	B			전문대졸	43	23.00	A	
				대졸 이상	138		22.75	AB			
부인의 연령	35세 이하	74	21.93	AB	4.86**	부인의 학력	중졸 이하	89	20.84	B	3.09*
	36-45세	183	23.33	A			고졸	201	21.65	B	
	46세 이상	50	19.54	B			전문대졸	40	24.40	A	
				대졸 이상	64		22.80	AB			
부인의 학력	중졸 이하	43	19.70	B	1.98	주택 규모	20평 이하	163	21.34	B	2.04
	고졸	82	22.70	AB			20평대	152	22.57	AB	
	전문대졸	26	23.12	A			30평대	60	21.40	B	
	대졸 이상	156	22.83	AB			40평 이상	19	24.42	A	
막내 자녀 연령	없음	67	20.22	B	3.16*						
	6세 이하	59	22.09	AB							
	7-12세	114	24.13	A							
	13-18세	37	22.73	AB							
	19세 이상	30	20.67	B							
자동차 소유여부	소유	283	22.67	A	5.13*						
	무소유	24	18.12	B							

*P<.05 **P<.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 : 스포츠시설의 요구도 평균(11×3=33점).

N : 무응답자로 인해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음.

소유하는 집단이 스포츠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이동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취미·교양시설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취미·교양시설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우선 수정·중원구의 경우를 보면, 남편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집단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적은 남편의 경우 직업적인 업무 외에 자기실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연령에서도 45세 이하의 집단이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결과를 볼 때, 남편의 연령집단과 같은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직업은 사무관리직 집단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무관리직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 활용계획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분당구의 경우, 취미·교양시설의 요구도에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남편과 부인의 연령이었다. 남편의 연령은 세 집단 모두 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연령집단에서는 45세 이하 집단이 높은 요구도를 보여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해소 및 자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감상·관람시설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감상·관람시설의 요

〈표 8〉 가구특성별 취미·교양시설 요구도 지역비교분석

분당구(n=309)						수정·중원구(n=401)					
변인	구분	N	M	D	F	변인	구분	N	M	D	F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43	14.61	A	3.27*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119	16.19	A	3.50*
	36-45세	193	15.70	A			36-45세	194	15.37	AB	
	46세 이상	72	14.13	A			46세 이상	88	14.60	B	
부인의 연령	35세 이하	74	14.73	A	7.25**	부인의 연령	35세 이하	203	15.99	A	5.21**
	36-45세	184	15.91	A			36-45세	136	15.24	A	
	46세 이상	50	13.16	B			46세 이상	62	14.03	B	
부인의 학력	중졸 이하	33	14.00	AB	2.24	남편의 직장위치	서울	132	15.97	A	2.21
	고졸	42	15.62	A			성남	173	15.61	AB	
	전문대졸	18	13.06	B			경기도(광주)	28	15.25	AB	
	대졸 이상	215	15.45	A			기타	44	14.07	B	
월평균 총소득	150만원 이하	23	13.22	B	1.97	남편의 직업	자영업	100	15.51	AB	3.78**
	150-200만원	60	15.95	A			전문기술직	62	14.52	AB	
	200-250만원	58	15.00	AB			생산판매서비스직	48	14.46	AB	
	250만원 이상	149	15.36	A			사무관리직	115	16.55	A	
						기타	10	13.60	B		

*P<.05 **P<.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 : 취미·교양시설의 요구도 평균(7×3=21점).

N : 무응답자로 인해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음.

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수정·중원구의 경우를 보면, 감상·관람시설의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남편의 연령·학력·직업·직장위치와 부인의 연령 및 직업, 막내자녀의 연령이었다. 남편의 연령집단과 부인의 연령집단에서 모두 45세 이하 집단이 46세 이상 집단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45세 이하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자녀들이 학령전기 및 초·중·고등학교기에 있는 연령집단에 속하므로, 이들이 여가시간에 자녀들의 학습 및 문화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상 집단의 요구도가 중졸이하 집단보다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력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관리직 집단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부인의 직업에서는 모든 집단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결과를 보였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12

세 이하인 학령전기와 초등학교기의 집단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19세 이상 집단은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오찬옥(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이는 감상·관람시설의 대부분이 학습과 관련된 시설들과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해야할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직장위치를 보면 직장이 서울과 성남에 위치한 집단이 비슷한 요구도를 높게 나타냈는데, 이는 주로 도시를 왕래하는 집단이 새로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분당구의 경우, 감상·관람시설의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구특성은 남편의 연령 및 학력, 부인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이었다. 남편의 연령집단과 부인의 연령집단의 결과는 수정·중원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은 부모일수록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학력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아져 대졸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

〈표 9〉 가구특성별 감상·관람시설 요구도 지역비교분석

		분당구(n=309)				수정·중원구(n=401)					
변인	구분	N	M	D	F	변인	구분	N	M	D	F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43	18.47	A	5.85**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119	18.83	A	4.08*
	36-45세	194	18.99	A			36-45세	194	18.44	A	
	46세 이상	72	16.39	B			46세 이상	87	16.76	B	
부인의 연령	35세 이하	74	18.27	A	8.70***	부인의 연령	35세 이하	203	18.82	A	4.92**
	36-45세	185	19.10	A			36-45세	135	18.08	A	
	46세 이상	50	15.46	B			46세 이상	62	16.37	B	
남편의 학력	중졸이하	33	16.76	AB	2.74*	남편의 학력	중졸이하	65	16.51	B	2.92*
	고졸	43	18.02	AB			고졸	150	18.34	A	
	전문대졸	18	15.78	B			전문대졸	45	19.36	A	
	대졸이상	215	18.82	A			대졸이상	140	18.44	A	
부인의 학력	중졸이하	43	16.26	B	2.59	남편의 직업	자영업	100	18.23	AB	2.83*
	고졸	82	18.17	AB			전문기술직	62	17.44	AB	
	전문대졸	27	19.15	A			생산판매서비스직	48	17.54	AB	
	대졸이상	157	18.81	A			사무관리직	115	19.55	A	
막내 자녀 연령	없음	67	17.10	AB	3.25*	부인의 직업	기타	10	15.50	B	2.29*
	6세 이하	60	18.78	A			자영업	23	17.48	A	
	7-12세	115	19.38	A			전문기술직	12	18.83	A	
	13-18세	37	18.27	AB			생산판매서비스직	22	15.14	A	
	19세 이상	30	16.03	B			사무관리직	30	18.80	A	
월평균 총소득	150만원 이하	23	16.17	B	1.64	막내 자녀 연령	전업주부	218	18.84	A	2.62*
	150-200만원	60	18.60	A			기타	10	16.33	A	
	200-250만원	59	17.75	AB			없음	94	17.83	AB	
	250만원 이상	149	18.69	A			6세 이하	141	19.06	A	
남편의 직장 위치						남편의 직장 위치	7-12세	68	18.60	A	3.85**
							13-18세	39	17.69	AB	
							19세 이상	58	16.50	B	
							서울	132	18.89	A	
						성남	172	18.66	A		
						경기도(광주)	28	17.43	AB		
						기타	44	15.96	B		

*P< .05 **P< .01 ***P<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 : 감상·관람시설의 요구도 평균(8×3=24점).

N : 무응답자로 인해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음.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적 효과에 의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 지게 되므로 자녀교육 및 자기실현을 위해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수정·중원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자녀들의 요구도

는 지역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사교·위락시설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사교·위락시설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가구특성별 사교·위락시설 요구도 지역비교분석

분당구(n=309)						수정·중원구(n=401)					
변인	구분	N	M	D	F	변인	구분	N	M	D	F
남편의 학력	중졸이하	33	15.36	AB	3.59*	남편의 학력	중졸이하	66	17.12	B	1.24
	고졸	43	17.40	A			고졸	149	17.76	AB	
	전문대졸	18	13.78	B			전문대졸	43	19.00	A	
	대졸이상	214	17.54	A			대졸이상	138	17.47	AB	
남편의 직업	자영업					남편의 직업	자영업	99	17.84	AB	2.44*
	전문기술직						전문기술직	60	17.08	AB	
	생산판매서비스직						생산판매서비스직	48	16.46	AB	
	사무관리직						사무관리직	114	18.76	A	
	기타						기타	10	15.70	B	
부인의 직업	자영업					부인의 직업	자영업	22	15.41	AB	3.93**
	전문기술직						전문기술직	12	16.67	AB	
	생산판매서비스직						생산판매서비스직	22	14.18	B	
	사무관리직						사무관리직	29	18.90	A	
	전업주부						전업주부	216	18.26	A	
기타				기타	6	16.50	AB				

*P<.05 **P<.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 : 사교·위락시설의 요구도 평균(8×3=24점).

N : 무응답자로 인해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음.

우선 수정·중원구의 경우를 보면, 남편과 부인의 직업이 사교·위락시설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편의 직업은 취미·교양시설과 감상·관람시설의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남편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인의

직업은 사무관리직과 전업주부 집단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생산판매서비스직 집단이 낮은 요구도를 보였는데, 이는 생산판매서비스직 집단의 경우 시간적 제약과 함께 경제적 제약이 많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가구특성별 여가문화시설 요구도의 지역비교분석(일원분산 분석결과 종합)

변인	스포츠시설		취미·교양시설		감상·관람시설		사교·위락시설	
	분당구	수정·중원구	분당구	수정·중원구	분당구	수정·중원구	분당구	수정·중원구
남편의 연령	**		*	*	**	*		
부인의 연령	**		**	**	***	**		
남편의 학력					*	*	*	
부인의 학력		*						
남편의 직업				**		*		*
부인의 직업						*		**
남편의 직장위치						**		
막내자녀의 연령	*				*	*		
자동차소유 여부	*							

*P<.05 **P<.01 ***P<.001

이들 두 지역간의 여가문화시설 요구도를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나 지역별로 가구특성에 의한 요구도에 별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남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정·중원구와 분당구의 여가문화시설에 대해 각 지역 주민들의 이용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이용실태와 요구도를 각각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향후 균등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가문화환경조성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문화시설의 4개 유형 34가지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중원구의 조사대상가구들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시설은 사교·위락시설로 특히 공원·유원지·놀이방 등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취미·교양시설로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그 다음으로는 감상·관람시설로 영화관과 소극장, 야외공연장을, 마지막으로 스포츠시설에서는 볼링장,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스포츠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당구의 조사대상가구들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시설은 스포츠시설로, 특히 수영장, 운동장, 볼링장 등의 시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교·위락시설로 공원과 유원지를, 그 다음은 취미·교양시설로 문화센터와 각종학원시설을, 마지막으로 감상·관람시설에는 영화관과 야외공연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상·관람시설에 대한 현재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들 시설의 부족현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여가문화시설의 4개 유형 34가지 시설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수정·중원구에서는 동/식

물원, 야외공연장, 문화회관 등의 감상·관람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미·교양시설로 도서관, 문화센터, 컴퓨터이용실 등을, 그리고 사교·위락시설로 공원, 유원지, 어린이회관 등을, 마지막으로 스포츠시설에는 수영장, 운동장, 볼링장, 헬스클럽 시설 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당구에서는 영화관,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등을 감상·관람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취미·교양시설로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그 다음은 사교·위락시설로 공원,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을, 마지막으로 스포츠시설에서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시설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가문화시설의 이용실태에서는 두 지역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요구도에 있어서는 두 지역이 여가문화시설 4개 유형에서 비슷한 요구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34가지 세부적인 시설에서 요구되는 시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는 두 지역간의 가구특성 및 선호도, 시설현황 등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가문화시설의 4개 유형에 대한 이용실태 및 요구도를 종합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정·중원구에서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는 감상·관람시설은 동/식물원, 야외공연장 시설이었으며, 과학관, 미술관/전시장, 박물관, 문화회관 시설은 이용률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분당구에서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는 감상·관람시설은 영화관, 야외공연장, 소극장이었으며, 문화회관, 과학관, 미술관/전시장, 박물관, 동/식물원 시설은 이용률은 낮았으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이들 두 지역의 감상·관람시설 대부분이 부족현상을 보이므로 이들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수정·중원구에서는 동/식물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므로 성남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분당구에는 영화관 시설이 높은 요구수준을 보이므로 이들 시설을 근린주구에 고르게 확보해주어야 할 것이다.

수정·중원구에서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는 취미·교양시설은 도서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시설이었으며, 컴퓨터이용실은 이용률에 비해 높은 요구

〈표 12〉 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비교

■ 감상·관람시설	[수정·중원구: 야외공연장, 동/식물원, 소극장, 과학관, 미술관/ 전시장, 박물관, 문화회관 분당구: 영화관, 야외공연장, 소극장, 과학관, 미술관/전시장 박물관, 동/식물원
■ 취미·교양시설	[수정·중원구: 도서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컴퓨터이용실 분당구: 도서관, 문화센터, 컴퓨터이용실, 사회복지관
■ 사교·위락시설	[수정·중원구: 공원, 유원지, 놀이방,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분당구: 공원,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어린이회관, 노인회관
■ 스포츠시설	[수정·중원구: 수영장, 탁구장, 테니스장, 운동장, 볼링장, 헬스클럽 분당구: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헬스클럽, 탁구장, 테니스장

도를 보였고, 분당구에서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는 취미·교양시설은 도서관, 문화센터 시설이었으며, 컴퓨터이용실, 사회복지관 시설은 낮은 이용률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보여, 이들 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비슷하므로 이들 시설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근린주구에 분산 배치하여 이용률은 높여주고, 지역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중원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요구하는 사교·위락시설은 공원, 유원지, 놀이방 시설이었으며, 노인회관,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시설은 이용률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분당구에서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는 사교·위락시설은 공원이었으며,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어린이회관 시설은 낮은 이용률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보이므로 사교·위락시설은 두 지역에서 모두 각 연령층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원시설은 이용률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볼 때, 성남시에서는 근린주구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다 편안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원시설을 고르게 분산배치 계획하여 주민들이 균등하게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수정·중원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요구하는 스포츠시설은 운동장, 볼링장, 헬스클럽이었고, 낮은 이용률에 비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시설은 수영장이었으며, 탁구장, 테니스장은 낮은 이용률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보이므로 이들의 시설확보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분당구에서 많이 이용되며 요구하는 스포츠시설은 수영장과 헬스클럽이었으며, 실내체육관, 탁구장, 테니스장은 낮은 이용률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보이므로 이들의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스포츠시설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접근성과 이용률을 고려하여 성남시 전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시설과 양적으로 고르게 분산배치 계획을 세워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비교해서 요구 순위별로 정리해 보면 〈표 12〉와 같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수정·중원구와 분당구에서 각각 필요로 하고 있는 시설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정·중원구에서는 문화회관, 유원지, 볼링장 시설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분당구에서는 영화관과 실내체육관 시설을 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성남시에서는 여가문화시설 보완 및 확보 계획시에는 각 지역의 요구도를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분당구와 수정·중원구 두 지역의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정·중원구의 경우, 취미·교양시설, 감상·관람시설의 이용실태는 막내자녀연령에 따라, 사교·위락시설은 부인 및 남편의 직업 및 학력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분당구의 경우, 스포츠시설 및 감상·관람시설 이용실태는 주택규모, 방 수, 자동차사용여부 등과 같은 주택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용실태의 차이를 보인 반면, 취미·교양시설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사교·위락시설은 자녀유무와 주택규모에 따라 이용실태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여가문화시설 계획을 할 때 반드시 공급예정 지역의 가구특성 파악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두 지역의 조사대상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문화시설 요구도를 비교해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정·중원구의 경우, 스포츠시설은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교양시설은 남편이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며, 남편의 연령은 낮을수록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부인의 경우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상·관람시설은 남편과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막내자녀연령이 12세 이하로 어릴수록,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장위치가 서울과 성남에 있으며,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요구도가 높았고, 부인의 직업은 모든 집단에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교·위락시설은 부인이 전업주부이거나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며, 남편도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당구의 경우, 스포츠시설은 부부의 연령이 36-45세이며 막내자녀가 초·중·고등학교기에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교양시설은 부인의 연령이 45세 이하 집단에서, 남편의 경우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상·관람시설은 부인과 남편의 연령은 낮을수록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부인의 경우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위락시설은 남편의 학력이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반면, 전문대졸 집단은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주민들의 사교·위락시설 같은 복지시설과 취미·교양시설 및 감상·관람시설 등의 문화예술공간 및 스포츠시설 등의 모든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이용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현재 성남시 두 지역에 모두 여가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남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교육·문화·예술수준이 향상되면 각 연령집단이나 계층별로 자기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성남시에서는 여가시간에 주민들이 근린주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한 여가문화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자녀양육 및 교육, 친밀한 이웃관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피크닉장, 위락시설, 광장 등의 시설확보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애항심 및 지역공동체감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망된다.

둘째, 두 지역 여가문화시설의 이용실태 및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조사대상 가구특성 요인들이 시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성남시에서는 여가문화시설 계획시 이들 지역에 균등하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공급예정지역 주민들의 가구특성에 따른 요구도 및 필요조건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두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남시의 여가문화시설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의 지역공동체적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노인·여성·청소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므로, 앞으로 관련연구에서는 현장조사방법 등을 통한 여가문화시설 환경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성남시(1998), 시정백서

- 2) 성남시(1998), 성남통계연보
- 3) 통계청(1998), 한국의 사회지표
- 4) 경기도(1998), 경기통계연보
- 5) 한국문화정책개발원·문화관광부(1998), 문화예술통계
- 6) 권미화(1994), 미혼신세대 소비자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광득(1988), 한국의 여가시설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김광득(1994), 현대여가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문화사.
- 9) 김문경(1993), 여가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10) 김진탁·김원인 편저(1997), 현대여가 위락론, 학문사.
- 11) 박숙희(1997), 여가활동과 공간확산, 여가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387-401.
- 12) 박숙희(1997), 현대산업사회의 형성과 여가, 여가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208-241.
- 13) 변용(1999), 신도시의 눈높이,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43(6), 28-33.
- 14) 신화경·이연숙(1997), 도시인의 여가행태 및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2), 187-195.
- 15) 안건혁(1999), 분당신도시 개발 10년을 맞이하며,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43(6), 71-27.
- 16) 양종희(1997), 한국인의 여가문화와 사회계급, 여가문화연구회편,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148-173.
- 17) 이길순·이원영(1987), 성남시 주거수준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학논문집 5, 239-254.
- 18) 이길순·이원영(1997), 성남시 여성의 사회교육 요구분석,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8(1), 44-55.
- 19) 이범재(1991), 문화시설의 운영 및 시설개선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 수원지역 문화시설 운영 및 이용실태분석에 따른 제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논문집 25, 207-237.
- 20) 이범재·김창언(1992), 문화시설의 분류 및 이용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6), 65-76.
- 21) 이연숙외(1994), 집합주거의 실내 및 근린생활권 환경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4).
- 22) 이연숙(1995),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서울, 경춘사.
- 23) 이연숙(1995),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한국의 미래주택 개발방향,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미래주택단지 개발의 방향(학술대회집),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63-108.
- 24) 이연숙·신화경·홍미혜(1997), 거주자 특성별 거주자공유공간 요구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1), 1-12.
- 25) 이정연·심미영·김영숙(1997),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여가생활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287-304.
- 26) 이종각(1987), 현대사회와 레크리에이션, 서울, 보경문화사.
- 27) 정지영·박영기(1992), 지역문화시설의 유형분류 및 시설공급 모델에 관한 연구: 문화시설의 공급과 수요의 추정 측면에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2), 71-76.
- 28) 하현국(1993), 여가와 인간행동, 서울, 백산출판사.
- 29) 한국관광공사 (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산업경제연구원.